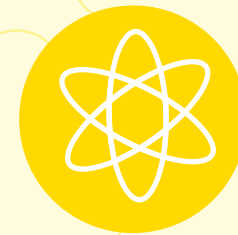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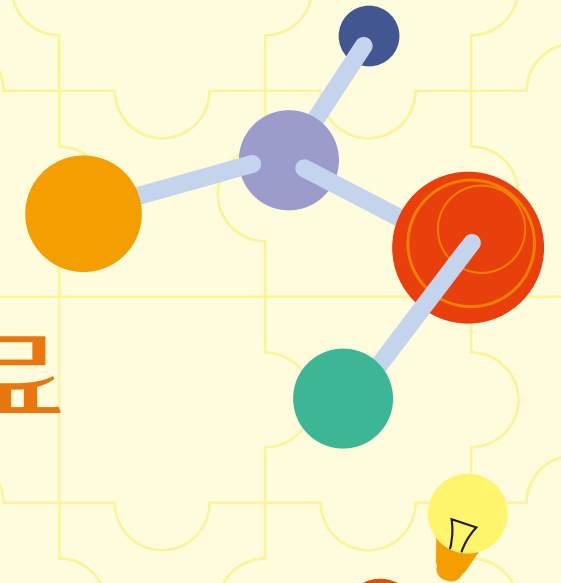
Vol.183

JAN+FEB  
2026



# 원자력연료

KNF MAGAZINE



## 존중과 존재

결국 마흔은 고단하지만 충분히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나이다.  
꼭 마흔이 아니어도 된다.  
지금이 마흔처럼 느껴진다면, 그 마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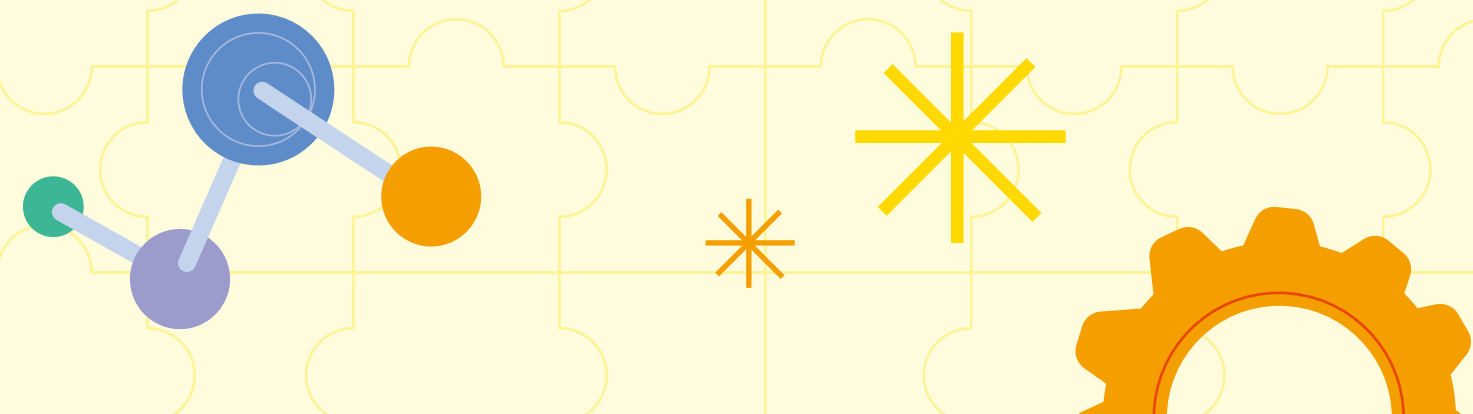
QR코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원자력 전주기 파트너,  
한전원자력연료의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세요.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JAN+FEB 2026 Vol.183

KNF MAGAZINE 원자력연료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 번뿐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딱 한 번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결정인지 결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결정을 비교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중에서

격월간 <원자력연료-KNF매거진>을  
모바일로도 만나요



안드로이드용

ios용

# KNF MAGAZINE



# 존중과 존재

**KNF MAGAZINE**  
JAN+FEB 2026  
Vol.183

**발행일**  
2026년 1월 15일

**발행처**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발행인**  
정창진

**편집실**  
ESG협력실 042-868-1144

**기획·디자인·제작**  
(주)이팝

## KNF-LIVE

- 04** 요즘 KNF는  
정창진 사장 신년사 및 새비전선포  
한전원자력연료의 뉴스
- 08** KNF ATTITUDE  
덕담 마구간
- 10** 배움 특특  
왜 철학은 마흔에 읽히는가

## KNF-INDEX

- 14** 전지적 개발시점  
친환경·경제성·기술적 독창성을 갖춘  
고강도 집속초음파 제염
- 16** 원자력 알쓸신잡  
탈원전·확원전 사이에서 멈춘 판단...  
대통령은 “과학으로 논의하자”  
중앙일보 경제부 김원 기자
- 20** KNF 선구자들  
올바른 선택을 이끄는 힘, 직감  
임정혁 한전원자력연료 전 감사실장
- 24** 안전알림 KNF  
눈이 많이 오는 날 안전을 지키는 방법  
대설 편

## KNF-LIFE

- 28** 열정 뽀뽀!  
KNF를 이끌어갈 신입 4인방의 달콤한 도전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
- 32** 구독해 드립니다  
우리들의 1년 먹거리, 김치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김치 구독 서비스
- 36** 배달의 KNF  
일상 속 작은 휴식을 더하는 안마기, 배달 완료!
- 40** 문화살롱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문화 캘린더
- 42** KNF ON AIR  
노노그램 11+12월호 정답자  
KNF 1+2월호 새로운 퀴즈



# 한전원자력연료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병오년 새해에는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말처럼  
새롭게 선포된 신(新)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힘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2025년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된 한 해였습니다. 끝나지 않는 2개의 전쟁, 미국의 관세정책과 국내의 탄핵정국으로 한 치 앞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완수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는 팀코리아 일원으로 체코 원전 수주전에 참여하여 바라카 원전 사업 이후 16년 만의 원전 수출이라는 국가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생산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끊임없는 기술 개발 노력으로 HIPER16에 이어 사고저항성연료 시범 장전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정부 경영평가에서는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이에 더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회사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늘 함께하여 주신 안희중 위원장님과 노동조합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KNF인상, 청렴인상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KNF 가족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I 기술은 무서운 속도로 진화 중이며 새로운 적자생존의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국내 원자력산업의 영역이 전주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생존을 넘어선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원자력 전주기 파트너”가 바로 그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비전 달성을 향한 힘찬 새출발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자력연료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원스톱 전주기 파트너로 도약합니다.** 우리의 고유영역인 원자력연료 설계·제조 사업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안정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나아가 해외 시장에서는 UAE를 넘어 체코까지 외연을 확장하는 쾌거를 거두어 글로벌 원자력연료 전문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2026년에는 글로벌 프렌드쇼어링(Global Friendshoring) 체제 속에서 국내

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선·후행주기의 다양한 분야로 밸류체인을 확장하여 원자력연료 전주기 종합 파트너로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둘째, 고객 맞춤형 솔루션 중심의 차세대 원자력연료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탄소중립의 주요한 수단 중 하나로 원자력이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원자력 시장은 SMR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에 따르면 2035년까지 세계 SMR 시장은 최대 85GW, 시장 규모는 연 150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원자력연료 솔루션 개발에 힘을 모아 나가야만 합니다. SMR, ATF, LEU+ 그리고 원전 탄력운전 등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차세대 원자로와 다양한 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나갑시다.

**셋째, AI의 폭넓은 도입과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무결점·무탄소·무사고 생산 혁신을 추진합니다.** AI와 디지털 전환(DX)의 흐름은 특정 분야에 국한된 장비나 기술의 도입을 넘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핵심 요소이자 사회 전반의 대체할 수 없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혁신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AI 제조·공정 혁신으로 무결점·무탄소·무사고 '3無 제조'를 실현해 품질혁신과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혁신과 변화의 과정에서 언제나 ESG 경영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마음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ESG경영은 단순히 국내 법령이나 기준을 준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수준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

입니다. 정부와 국내외 발전사,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참여 중심의 ESG경영 내재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사 Net-Zero(넷제로)의 조기 달성과 글로벌 ESG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계로의 전환에 힘쓰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노·사간의 협력이 있어야 이루어 나갈 수 있기에, 노동조합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한전원자력연료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은 도약과 성장의 기운이 강한 해라고 합니다. 병오년의 힘찬 기운을 받아,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를 만들어 봅시다.

저는 우리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원자력 전주기 파트너’라는 우리의 비전은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임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병오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오년(丙午年) 새해 아침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사장 정 창 진

# KNF NEWS

2026 JAN+FEB



## 한전원자력연료, 창립 43주년 맞이 신(新)비전 선포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장창진)가 창립 43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11일 대전 본사 사내 강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원자력 전(全)주기 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비전은 환경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해 원자력 전(全)주기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글로벌 동반자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전원자력연료는 미래 에너지 산업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행사에서는 창립 43주년을 기념해 모범사원 및 공로사원 포상, 장기 근속사원에 대한 근속패 수여가 진행됐다. 장창진 사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43년간 피땀 눈물로 걸어온 성장의 발자취와 최근 이루어 온 성공의 DNA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자"며 "세계로 비상하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원자력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 KNF의 성장스토리



## KNF 미래 선도를 위한 미션·비전 및 4가지 핵심가치



## 전략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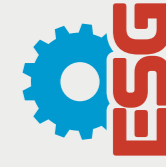
**1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차세대 원자력연료 솔루션**  
SMR, ATF, LEU+와 차세대원자로 등 미래형 연료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고객 맞춤형 설계와 성능 최적화를 통해 R&D 중심의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할 예정이다.



**2 AI·DX 기반 무결점 생산 및 공정 대혁신**  
AI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무결점·무탄소·무사고의 원상형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하고, 데이터 기반의 품질관리와 예측정비를 통해 제조혁신의 글로벌 표준을 장립할 예정이다. 모든 구성원이 AI 전환을 선도하는 게 적자로서 미래 제조혁신의 주체가 될 것이다.



**3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의 원자력연료 전(全)주기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  
국내를 넘어 글로벌 프렌드쇼어링 체제 속에서 전주기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농축재처리와 고준위폐기물 처리 등 전주기 영역을 넓혀 국가 에너지안보와 원자력 안전을 책임질 것이다.



**4 ESG 기반의 글로벌 경영체계로 혁신**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영의 핵심 철학이자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 인적경영체계 완성과 전사적 Net-Zero 달성, 이해관계자외의 소통 강화를 통해 책임과 신뢰의 ESG 리더십을 조직 전반에 내재화할 것이다.

# 요즘 KNF는

## 한전원자력연료,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입사식 개최



한전원자력연료는 지난해 11월 24일 '2025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입사식'을 개최하고, 새 출발을 맞은 신입사원을 환영했다. 이날 입사식에서는 총 59명의 신입사원에게 임명장과 휘장이 수여된 후, 정창진 사장의 환영사와 신입사원 교육 과정을 담은 영상 상영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입사원들의 포부를 공유하는 자리로 꾸러졌다. 정창진 사장은 환영사에서 "한전원자력연료의 일원이 된 신입사원을 임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환영한다"며 "끊임 없는 자기 개발과 혁신으로 미래를 향한 도전을 실천하며 한전원자력연료의 미래를 열어 가는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한전원자력연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해 11월 25일 밝혔다.

한전원자력연료는 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이후 2025년까지 7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대전지역 공공기관 협업체 '퍼블리코 대전' 및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협업과제를 통한 연합 봉사 및 취약계층 지원활동, 업(業) 기반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중심 사회공헌활동,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경영 활동 등에 관한 높이 평가받았다. 정창진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

2

3

## 한전원자력연료, 제62회 무역의 날 '3억 불 수출의 탑' 수상



한전원자력연료는 지난해 12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3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연료 설계·제조 기업으로, 2017년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필요한 원자력연료를 전량 수출해 왔다. 또한 고품질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원자력연료 핵심부품과 기술 등을 미국·영국·브라질·덴마크 등지에 공급하며 총 3억1천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정창진 사장은 "이번 수상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값진 결과"라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 동반관계 기반의 원자력연료 전주기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4

## 한전원자력연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획득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해 12월 23일 밝혔다.

특히 공직유관단체III 평가 대상 21개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하며, 청렴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윤리경영 시스템 강화, 청렴문화 내재화, 경영 확산 및 환류 등 3대 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를 기반으로 반부패·청렴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창진 사장은 "전 임직원이 묵묵히 정도를 걸으며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국민과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 실천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 한전원자력연료, 7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

한전원자력연료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7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해 12월 11일 밝혔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해 직무 능력 중심의 인재를 선발하고,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에 힘쓴 점을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은 채용시스템, 채용운영, 채용성과 총 3개 부문에 대한 서면 검토와 현장 심사를 거쳐 부여됐다. 정창진 사장은 "공정한 직무 능력 중심 인재 선발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 확보·양성에 힘써 원자력 전(全)주기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

# 덕담 마구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 있다. 새해를 맞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웃음이 되는 덕담을 건네 보는 건 어떨까. 하지만 전하고 싶은 말이 막막할 때를 위해,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상황별 덕담을 한데 모았다. 이대로만 실천해보자.

정리. 편집실



## 유머 한 스푼

### 일상용

올해는 다이어트는 내년으로 미루고, 행복은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 너무 많이 받으면 저랑 나눠주세요!

### 직장·동료용

새해엔 야근 대신 야식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승진은 보너스로, 행복은 기본 옵션으로 드립니다.

### 가족·친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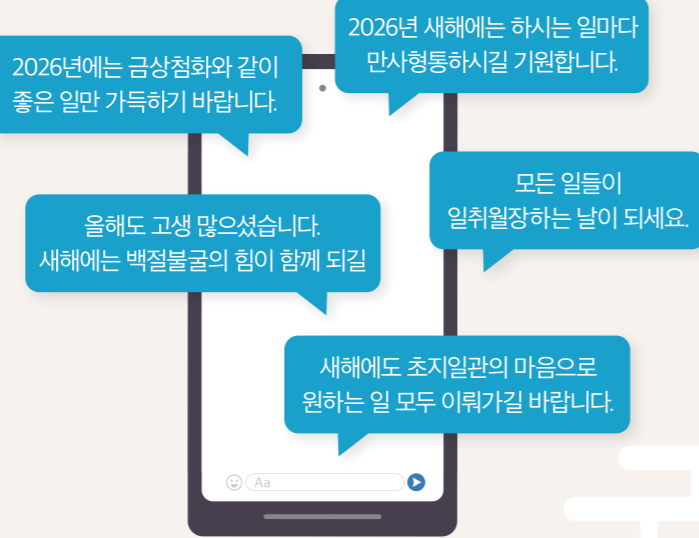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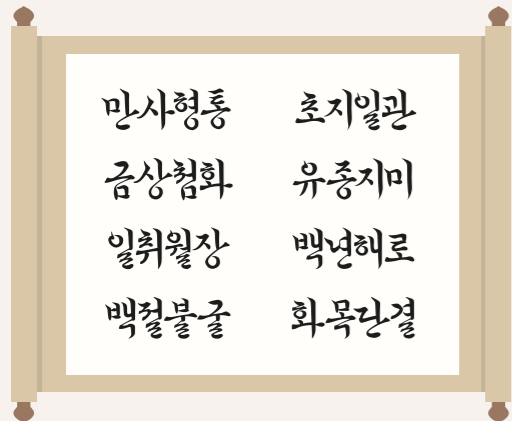
올해는 잔소리 대신 칭찬으로 채워주세요. 단, 용돈은 그대로 유지!

웃음이 넘쳐서 주름이 늘어나도, 그 주름이 행복의 증거가 되길!

### 윗사람용

건강은 기본, 복은 덤, 웃음은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 만능 단어 - 사자성어 편



## 맞춤형 덕담 - 인물별

now

**가족·친인척**

새해에도 부모님의 건강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now

**자녀**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늘 응원할게. 새해엔 더 많이 웃는 네가 되길 바란다.

now

**친구**

새해엔 더 자주 만나고, 덜 바쁘게 살자. 웃음으로 기억될 한 해가 되길!

now

**직장 후배→선배**

늘 지혜와 따뜻한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now

**직장 선배→후배**

도전하는 용기와 즐기는 마음으로 새해를 채워가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경험이 당신을 더욱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 병오년 맞춤 덕담

붉은 말의 뜨거운 기운이 올해는 당신의 열정과 성취를 불태워주길 바랍니다.

붉은 말의 힘찬 발굽 소리처럼, 당신의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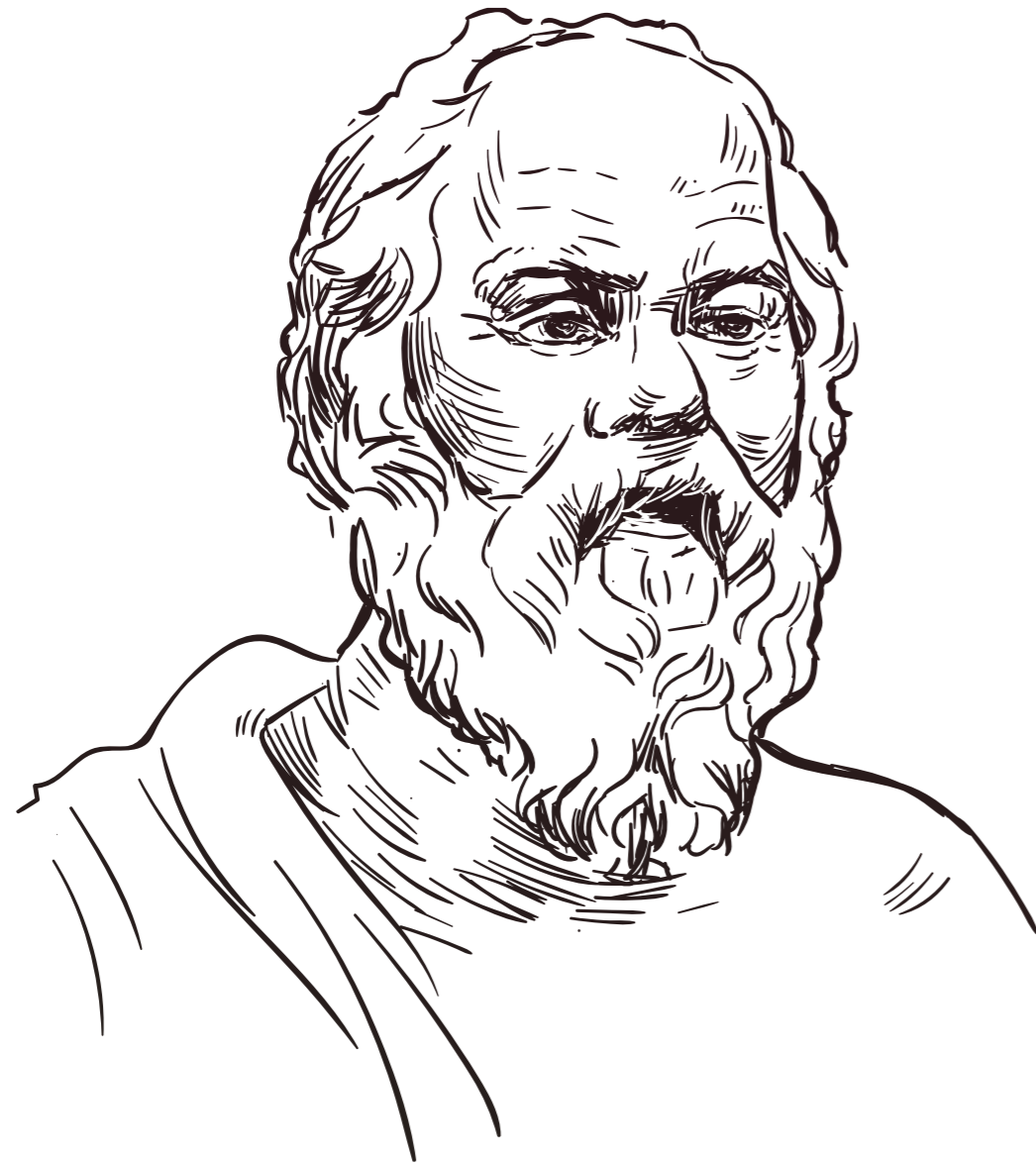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 새해엔 건강과 행복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붉은 말이 내딛는 걸음마다 행운이 따라붙고,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붉은 말의 불꽃 같은 에너지로, 새해엔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 왜 철학은 마흔에 읽히는가



최근 서점가에는 공통된 제목의 책들이 눈에 띈다. 『마흔에 읽는 소크라테스』, 『마흔에 읽는 니체』, 『마흔에 읽는 비트겐슈타인』, 『마흔에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 철학 입문서로 손꼽히는 고전들이 하나같이 ‘마흔’을 호출한다. 이 현상은 단순한 마케팅 언어의 유행일까. 아니면 철학이 실제로 마흔이라는 시기와 특별한 궁합을 갖기 때문일까.

글: 편집실

## MZ세대까지 사로잡는 '마흔, 학미, 극점'의 비밀

‘마흔에 읽는’ 철학 입문서의 확산은 개인적 취향의 변화라기보다 독서 지형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다. 교보문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인문 분야 도서 판매는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중 서양철학 도서의 신장률은 무려 125.8%에 달했다. 인문 분야 내 판매 비중도 58.6%로 절반을 넘어서다. 철학이 더 이상 소수 독자의 영역이 아니라 대중적 사유의 도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흥미로운 점은 이 흐름이 단기 유행이 아니라 ‘반등’이라는 사실이다. 2024년 -32.1%의 하락세를 보였던 동양철학 도서 역시 올해 상반기 16.4%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철학 전반에 대한 관심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 중심에 ‘마흔’이라는 연령 코드가 놓여 있다.

대표적 사례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다. 이 책은 2025년 초부터 베스트셀러 1위를 오르내리며 꾸준히

판매됐다. 이후 ‘쇼펜하우어’를 제목에 포함한 책만 지난해 8종, 올해 상반기에만 13종이 출간됐다. 염세와 고독, 고통의 철학으로 알려진 그의 사유가 지금 다시 읽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불확실성과 피로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쇼펜하우어는 위로나 희망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언어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관심은 특정 철학자에 머물지 않는다. 상반기 판매 순위는 쇼펜하우어를 시작으로 니체, 마키아벨리, 플라톤, 칸트로 이어졌다. 이는 자기계발서에서 철학으로 이동한 독서 욕구의 방향을 보여준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서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로 질문이 바뀐 것이다. 철학이 처세술이 아니라 성찰의 도구로 소비되고 있다는 신호다.



동양철학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 『강신주의 장자수업』, 『오십에 읽는 장자』 등 장자 관련 도서가 주목받았다. 경쟁과 성취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삶의 국면에서, 장자의 철학은 자유와 무위, 거리두기의 사유를 통해 또 다른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

‘마흔에 읽는’ 철학 입문서 시리즈는 단순한 연령 마케팅이 아니다. 그것은 중년 세대의 현실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유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더 빨리 달리는 법이 아니라 지금의 속도를 이해하는 법,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해온 선택을 해석하는 법.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읽히고 있다.

경험과 사유가 만나는 시점

마흔은 인생의 중간 지점이라기보다 선택의 결과가 가시화되는 시기다. 직업과 관계, 가치관은 어느 정도 고정되고, 가능성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된다. 이때 인간의 질문은 달라진다.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묻게 된다. 철학은 바로 이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다시 필요해진다.

발달심리학에서는 중년기를 ‘평가와 재구성의 시기’로 설명한다. 삶을 확장하기보다 이미 살아온 시간을 해석하고 정리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점이다. 공공데이터 『생애주기별 한국인의 행복지수 영향 요인』 보고서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아동·청소년기는 학업 성취와 자존감, 친구 관계가 삶의 만족을 높이는 반면 부모의 방임은 우울을 키운다. 청년기는 우울·불안·스트레스·자살 사고가 가장 높고 삶의 만족은 가장 낮아, 심리적 개입이



‘마흔에 읽는’ 철학 입문서 시리즈

‘마흔에 읽는’ 철학 입문서 시리즈는 철학을 쉽게 만들기보다 지금의 삶에 맞는 언어로 번역한다. 니체는 ‘가치의 재평가’를,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의 침묵’을, 신화는 ‘반복되는 인간 본성’을 마흔이라는 좌표 위에 올려놓는다. 이는 철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는 입문서로, 이미 철학을 알고 있는 독자에게는 재독의 계기로 작용한다.

마흔은 철학을 소비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나이는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철학이 필요해지는 첫 번째 나이임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 것인지, 멈춰 서서 재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질문을 시작할 것인지. ‘마흔에 읽는’ 철학은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지금의 삶에 되돌아오는 질문을 남긴다. 그 질문을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마흔이다.



인생의 한 여름을 버티는  
당신에게 노시인이 남기는  
행복할 의지의 말들

저자 나태주  
발행일 2025.02.19.  
출판사 북폴리오

나태주 시인은 『마흔에게』에서 “40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이 고달프기만 하던 나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나 뒤이어 80대가 된 시점에서 돌아보니, 그 시기는 학교를 옮기고, 학업을 이어가고, 교감 자격증을 얻는 등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결국 마흔은 고단하지만 충분히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나이다. 꼭 마흔이 아니어도 된다. 지금이 마흔처럼 느껴진다면, 그 마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우리에게 발췌 쓰인 새로운 서판을 완성할 의무를 부과한다. 차라투스트라는 두 개의 서판을 주변에 둔 채 자신의 때를 기다린다.

『마흔에 읽는 니체-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한 철학 수업』 중에서



<2025년 11월 통계로 보는 판매동향(판매부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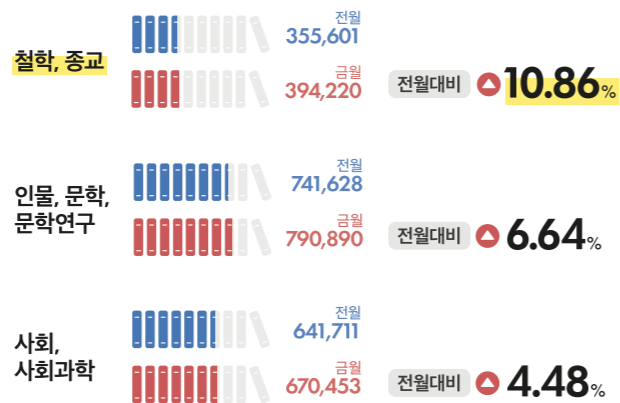
전월대비 ▲5.13%

7,656,220



전체 판매

※출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절실한 시기다. **중장년기는 신체·정신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40대는 삶의 만족과 사회적 지지가 최저 수준을 보인다.** 반면 노년기는 60대에서 건강과 스트레스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70대는 삶의 만족과 사회적 지지가 가장 높았다. 다만 고립감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는다.

이처럼 생애주기별 심리적 특성은 철학이 다시 읽히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자각’은 젊은 시절엔 격언처럼 보이지만, 마흔의 독자에게는 자기 삶을 되묻는 질문으로 다가온다. 니체의 허무주의나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한계론도 경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실감된다. 철학은 원래 경험을 전제로 작동하는 사유 체계다. 삶이 쌓일수록 문장은 깊이를 얻는다. 인지적 측면에서도 마흔은 철학 독서에 적합하다. 정보 처리 속도는 다소 느려지지만, 맥락을 이해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합하는 능력은 오히려 강화된다. 철학이 요구하는 것은 빠른 이해가 아니라 삶의 맥락 속에서 사유를 연결하는 힘이다.

# 친환경·경제성·기술적 독창성을 갖춘 고강도 집속초음파 제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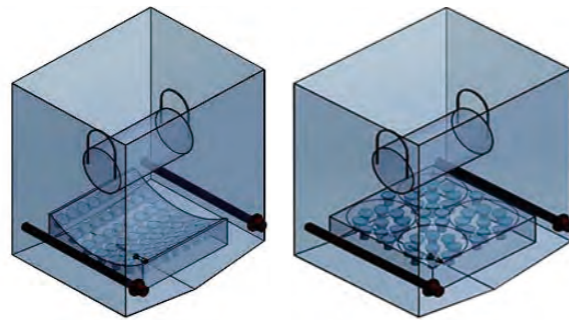
고강도 집속초음파 제염기술은 배관·볼트 등 복잡한 형상의 고체 방폐물까지 효과적으로 제염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화학첨가제 없이도 높은 성능을 발휘하며, 기존 수제염·용융제염·일반 초음파제염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 기술 내용(배경 및 필요성)

한전원자력연료 개발 중인 고강도 집속초음파 제염 기술은 기존 초음파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여 미세입자와 고착성 오염까지 제거할 수 있는 차세대 제염 기술이다.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만으로도 높은 제염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복잡한 형상의 금속폐기물에도 적용 가능하다. 실증 결과 지르코늄, 볼트, 파이프 등 다양한 금속 방폐물이 최소검출가능농도(MDA) 이하로 제염되었고, 볼트·너트·배관·공구 등 복합형상 폐기물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입증하였다. 또한 200L (리터) 드럼 단위의 대용량 폐기물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설비가 개발되어 대량 제염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의 목표는 단순히 오염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자체 처분이 가능할 정도로 방사능을 낮추고, 다양한 폐기물을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 우라늄 오염 입자크기에 따른 3단계 제염시스템(50, 100, 200 kHz)
- 저주파 제염(큰 입자 제염) → 면적 고주파 제염(작은 입자 제염) → 집속 고주파(미세구역 포인트 제염)

<단계별 초음파 제염시스템 개략도>



특성	기존 초음파	고강도 집속초음파
제염대상 입자	10 $\mu$ m 이상	모든 입자 (1 $\mu$ m 이하 포함)
제염수준	비고착성 오염 제거	고착성(녹) 오염까지 제거 가능

### 기술개요

고강도 집속초음파 제염은 고강도 집속초음파 배열(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nic Arrays)을 활용해 금속 표면에 강력한 에너지를 집중시킴으로써 오염 입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특히 복잡한 형상의 금속폐기물에도 적용할 수 있어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기술 특징

한전원자력연료의 고강도 집속초음파 제염 기술은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제염 과정에서 **별도의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만으로 처리할 수 있어 2차 오염을 최소화하며, 빠른 속도와 높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기술로는 제염이 불가능했던 **복합형상의 방폐물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면적 초음파와 집속 초음파를 함께 적용해 제염 효율을 극대화**한다.

### 기술 내용

- **우라늄 오염 방폐물 제염 실증** : 지르코늄/볼트/파이프 등 방폐물 제염 후 모두 MDA\* 이하 확인  
\*Minimum Detectable Activity, 최소검출 가능농도
- **원전발생 방폐물 제염 실증** : 볼트/너트/배관/공구 등에 대해 MDA 수준까지 제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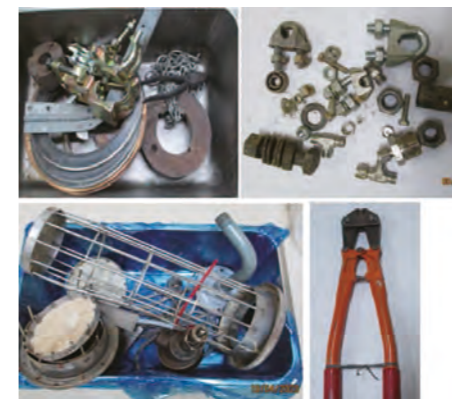
이동형 제염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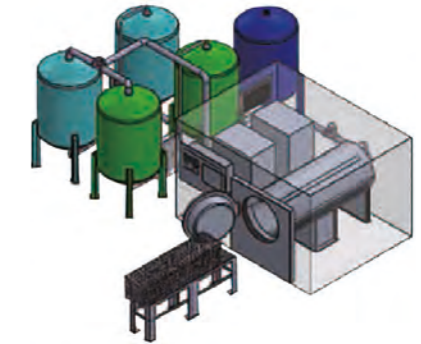
배관 제염 전

배관 제염 후

<집속초음파제염 가능 원전발생 방폐물류>



- **대용량 고강도 집속초음파 제염설비** : 200L 드럼 방폐물 일괄제염



<집속초음파 제염 전후>



배관 제염 전

배관 제염 후

### 기대 효과

제염이 불가능했던 폐기물을 자체 처분할 수 있어 처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복합형상 방폐물 제염을 통해 기존 용융제염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불어 특허 확보를 통해 원전 해체 시장에서 금속폐기물 제염 분야를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실제 한전원자력연료가 보관 중인 금속폐기물을 기준으로 약 240억 원의 관리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실증 시험에서도 지르코늄, 볼트, 파이프 등 다양한 폐기물이 모두 최소검출 가능농도(MDA) 이하로 확인돼 기술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 탈원전·확원전 사이에서 멈춘 판단... 대통령은 “과학으로 논의하자”



김원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주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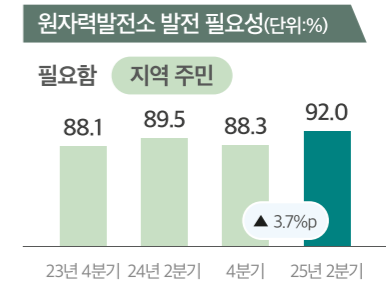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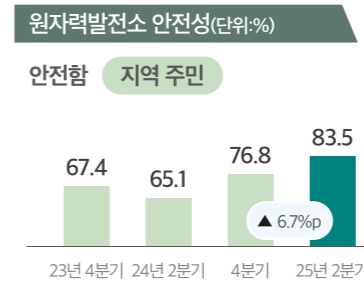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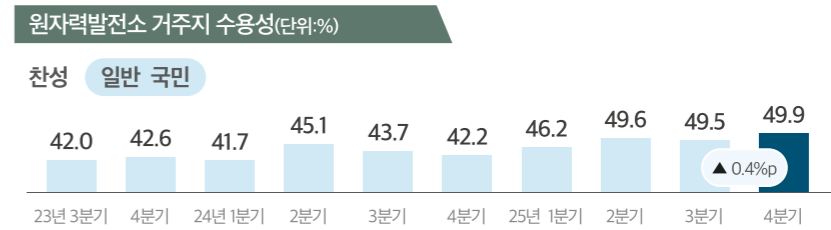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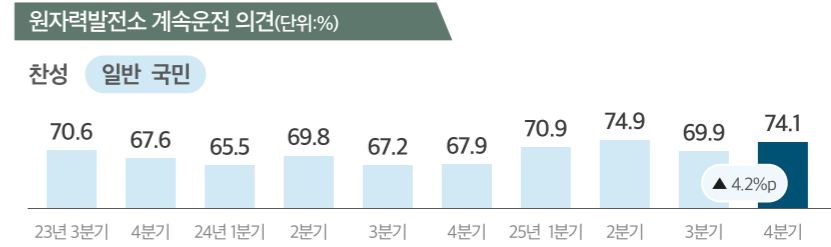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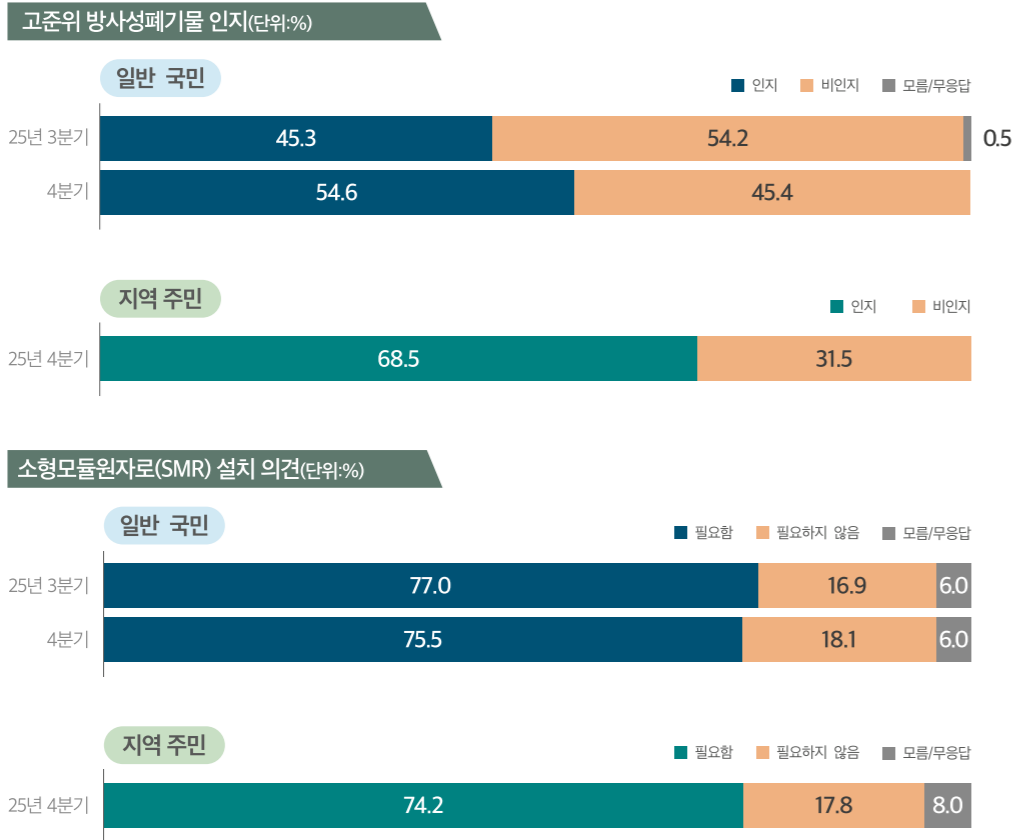
## AI 시대, 에너지 경쟁력의 새로운 기회

2025년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원전 정책이 정치적 논의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 언급되며, 과학적 검증과 사실에 근거한 판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보고 과정에서는 원전 건설 소요 기간,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시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효과 등 구체적 쟁점이 직접 질문으로 제기되며 논의의 방향을 과학적 접근으로 돌릴 것을 주문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과거에는 탈원전을 ‘대세’로 규정하며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합 필요성”을 언급하며 원전을 보조적 전원으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변화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설문조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원전 정책은 정치와 여론의 영향 아래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력 수요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증설로 전력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수만 장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24시간 가동해야 하고, 반도체 공정 역시 전력 공급이 단절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반드시 확대해야 할 과제이지만, 출력 변동성과 저장 비용이라는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기저 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주요국들은 원전을 다시 ‘필수 인프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기존 원전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대형 원전과 차세대 원자로 건설을 병행하고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실상 유지해 온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재가동과 신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 <에너지 국민인식조사(하반기)>

일반국민 1분기~4분기(n=2,000)  
지역주민 2분기, 4분기(n=1,500)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대만의 사례는 정책 유보와 수정이 가져올 수 있는 비용을 보여준다. 대만은 2016년 '2025년 탈원전'을 목표로 원전 단계적 폐쇄를 추진했지만, 재생에너지 확충 속도가 전력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잦은 정전과 전력 불안을 겪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전력 부담이 커지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확산됐고,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 폐쇄 일정 일부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근에는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과 원전 활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명확한 탈원전 목표를 세웠다가 현실의 비용 앞에서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들도 원전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건설링업체인 달로이트는 "향후 10년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원전이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소형모듈원자로

(SMR)는 데이터센터 인근에 설치해 송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런 전망을 배경으로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이어가면서도, 원전 기반 전력 확보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경쟁이 심화될수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이 곧 기업 경쟁력이 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선택은 결국 비용과 경쟁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값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 비중을 단기간에 급격히 늘릴 경우, 그 부담은 산업 전반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전기요금만 기업 경영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70% 넘게 급등했다. 연료비 상승과 탄소 비용 반영, 전력망 투자 비용이 한꺼번에 요금에 얹히면서 제조업 현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제련·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에서는 전기료가 제조원가의 30~40%를 차지한다. 전력 단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손익 구조가 크게 흔들리는 산업들이다. 현장에서는 "원재료 가격보다 전기요금이 더 무섭다"는 말까지 나온다. 전력 단가 격차는 곧바로 투자 결정에 반영된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설비를 놓고도 어느 나라에서 돌리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 산업 경쟁력 지키는 과학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지만, 그 속도와 방식이 산업의 비용 감내 능력을 넘어설 경우 제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원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전기요금·투자 유출·산업 구조까지 함께 고려한 냉정한 계산이 필요하다. 정책의 불확실성은 고스란히 비용으로 전가

된다. 원전을 더 짓든, 짓지 않든 결정을 미루는 시간 자체가 산업과 투자자에게는 위협이 크다. 공론화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찬반의 숫자 싸움으로 흐를 경우 정책 결단을 지연시키는 장치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이 대통령이 "과학 논쟁에 왜 편을 가르느냐"고 지적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AI 전쟁에 뛰어든 지금, 정부가 모호한 신호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전이나 재생에너지의 이분법을 넘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에너지 안보를 판단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확대하되, 기존 원전의 활용과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해서도 과학적·경제적 판단에 기반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순간, 에너지 정책은 다시 진영 논리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 판단하다

[동사] :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자기의 생각을 마음으로 정하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매 순간 크고 작은 판단을 내리며 살아간다.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행동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한 발자국, 말 한마디, 한숨조차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되는 결과물이다. 이러한 선택이 쌓여 생활이 되고, 그 생활의 연속이 삶이다. 물론 삶은 예기치 않은 타인의 행동이나 갑작스러운 자연의 힘 혹은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크게 흔들릴 때도 있다. 그런 경우는 운명(적)이라고 차치하고, 대부분은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내가 선택한 일련의 합(合)이 바로 삶이다. “인간은 자유 그 자체”라는 장 폴 사르트르의 말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되지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 또한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결국 자신의 행복과 불행은 태어날 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빚어내는 도자기와 같다는 것이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거쳐 색상과 광택, 미세한 질감 등이 완성되듯이 삶 또한 각각의 선택이 모여 저마다의 모습으로 빚어진다. 자신의 선택은 개인을 넘어 그가 속한 가족·조직·사회라는 더 큰 시스템의 모습까지 바꾸어 놓는다.

# 올바른 선택을 이끄는 힘, 직감



글. 임정혁 한전원자력연료 전 감사실장 사진. 편집실

## 선택하다

[동사] :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다.

좋은 선택이 반복되고 지속될 때 개인과 조직은 성장한다. 그러나 성장은 대개 고통과 시련을 동반한다. 잔잔한 파도보다는 거센 풍랑이 유능한 항해사를 만들고, 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란 보리가 더욱 알차듯, 어려움은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되곤 한다. 강풍 속에서 등지를 잃은 경험이 있기에 바람이 거센 날 힘겹게 집을 짓는 새들처럼, 인간뿐 아니라 미물조차도 시련 속에서 생존과 발전의 방식을 익힌다.

노력은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며, 노력의 결과를 우리는 성공이라 부른다. 물론 노력과 성공이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공한 사람은 예외 없이 노력했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력은 곧 좋은 선택을 견인하여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는 없지만, 그 안에 깃든 에너지는 조곡의 출수를 기대하게 한다. 멈춰 있는 시계는 하루에 두 번 정확한 시간을 가르키지만 부지런히 움직이며 1분 빨리 가고 있는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단 한 번도 맞히지 못한다. 하지만 어느 쪽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분명하다.

한 번 더 강조해 말하자면, 창조는 타고난 저마다 소질에 의한 탄생이랄 수 있지만 좋은 선택은 부단한 수고와 절차탁마의 산물인 것이다. 나를 가로막고 힘들게 했던 바람을 어느 순간 나를 밀어 주는 힘으로 바뀌게 하는 것, 즉 고생 끝에 낙인 셈이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훨씬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맞바람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다 보면 건너 홀에서는 그 바람이 뒷바람 되어 오히려 내 비거리를 늘려주는 경우가 있다. 수고와 시련을 두려워 말고 그 속에서 통찰력을 키워나간다면 내일의 자신에게 올바른 선택의 길을 안내할 것이다.

올바른 선택은 축적된 통찰력에서 생겨난 직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직감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삶을 숙성시켜 생겨난 결과적 선물(Gift)일 수 있다. 공자(BC 551-479)가 인생 40대를 ‘불혹’으로, 70대는 ‘불유거’라고 표현한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것이다. 즉 연륜으로 쌓인 직감으로 무장하게 되면 미혹함이 없고, 마음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틀리거나 그릇됨이 없더라는 의미로 일상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직감에 대해 언급한 말이 아닌가 싶다. 오늘날은 공자가 살았던 옛날 옛적 단순했던 농경사회와는 사뭇 다르다. 대개가 젊은 시절에 학습과 탐구라는 훈련을 통해 지식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마다 삶을 지속해 나간다. 자신이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수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잠재능력을 키워간다.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자신만의 직감으로 발전되고, 이런 직감이 바로 AI가 탑재할 수도 또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인간만의 상황 판단능력이 되는 것이다. 직감이 깊어질수록 선택의 품질은 높아질 것이고, 그 결과로 삶은 더 윤택해질 것이다.

모든 상황을 원인 분석한 후 최선의 선택을 할 때 최고의 삶이 되겠지만 순간순간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세상일 모두를 그렇게 대처해가며 살아갈 시간적 여유가 없다. 바뀌 말해 급변하는 다급한 상황마다 매뉴얼이나 백과사전을 매번 찾아서 판단하거나 결정하게 된다면 남들보다 한발 늦은 선택을 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이나 조직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은 공동의 삶 속에서 뒤처지기 쉽고, 회사는 기회비용을 허비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결정은 변화무쌍한 요즘 시대의 필수가치이다. 따라서 하루라도 젊은 시절에 이것들을 가능하게 할 직감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선의 선택을 이끌어줄 직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 ‘삼인행이면 필유아사라 했듯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야 하고, 경험을 넓혀야 한다.
- 선입견을 갖지 말 것이며, 아집은 버려야 한다.
-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기꺼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
-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과거의 것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 자만하지 말고, 배움을 늘 배고파해야 한다. 스티브 잡스의 조언처럼 말이다.

아울러 직감을 왜곡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 상대를 포용하지 않거나 얽잡아 보면 직감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제공된다.
- 스스로 경계를 갖고 담장을 높이면 올바른 직감을 키우기 어렵다.
- 선택의 반대편에 있는 포기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직감 실행이 흔들린다.
- 유혹이나 편함에 익숙해지면 직감이 오염된다.
- 정보의 비대칭이 만들어 내는 편향(bias)은 직감을 크게 왜곡시킨다.



## 직감

[명사] : 사물이나 현상을 접했을 때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아니하고 진상을 곧바로 느껴 알. 또는 그런 감각.

일을 단순히 일로만 대하면 기쁨도 확신도 없다. 한낱 호구지책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붙여놓고 내가 하는 일이 회사 또는 누군가를 뜨겁게 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애착이 더 가며 그 애착은 통찰력을 키우고 결국 우량한 직감으로 발전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한 치의 실수나 미련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일단 선택했으면 착실하게 앞을 보며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하기에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후회 없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직감을 키워나가야만 한다.

모든 선택의 결과는 우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지만 나아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직·간접적으로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친다. 정확한 판단하에 올바른 선택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더욱 더 여기에 있다.

한밤중의 달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데 동이 트기 시작하면 흐릿하게 보인다. 직감의 힘 또한 어렵고 힘들 때 더 큰 효과가 발휘된다. 올바른 선택을 이끄는 힘, ‘직감’을 증진시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준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다.

새해가 밝았다. 여러분의 건승을 빈다.

# 눈이 많이 오는 날 안전을 지키는 7가지 방법 - 대설편

겨울철 대설은 아름다운 풍경 뒤에 크나큰 위험을 숨기고 있다. 짧은 시간에 쌓이는 눈은 교통사고와 산간 고립, 시설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습설은 무게가 3~10배 더 무거워 피해를 가중시킨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상정보 확인과 제설, 교통안전 수칙 준수, 생활 필수품 준비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작은 실적이 큰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대설 국민 행동요령>

**1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대설·습설에 대비**  
\*눈이 쌓이면 긴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용 금지)

**2 내 집·점포 앞 눈을 치워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미끄럼 사고 대비**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3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 이상, 안전을 확보한 후 실시하며, 지붕 올라가기 등 무리한 작업 금지**  
\*눈이 많이 쌓였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

**4 눈이 많이 쌓인 가로수, 노후건축물, 비닐하우스 등은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 접근 금지**  
\*노후 축사, 임시천막, 비닐하우스 등은 미리 점검·보강

**5 적설·결빙 도로에서는 안전거리 유지 및 시행 금지동·급가속·급핸들 조작하지 않기**  
\*제한 최고속도의 20~50% 감속

**6 운전자 경우, 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자동차 월동용품 및 제설 도구를 미리 준비**

**7 정전·고립 대비, 생필품\*을 가정, 차량에 비치**  
\*비상조명, 보온물품(담요, 핫팩 등), 간편식, 식수, 연료 등



###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 설치를 통해 대설, 풍랑 등 기상특보나 눈사태, 시설물 붕괴 등 재난·경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KNF를 이끌어갈 신입 4인방의 달콤한 도전

처음이라는 것은 늘 두렵다. 하지만 서툰 손끝과 웃음 섞인 실수 속에서 사람은 한 단계 성장한다. 2025년에 입사해, 2026년에는 진짜 KNF인으로 거듭날 네 명의 신입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직은 '신입'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지만, 이 달콤한 하루를 통해 네 사람의 열정은 KNF의 내일을 향해 천천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글. 최설화 사진. 황지현

KNF를 이끌어갈 신입직원 4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노심감시개발부 김치현 연구원, 안전환경부 이현규 직원, 준법경영부 김민성 직원, 중수로연료부 김민성 연구원. 입사한 지 1년도 채 안 된 '따끈따끈'한 신입들이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2026년이면 '신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선배들처럼 당당하게 KNF인으로 거듭 나겠다는 목표다.

## 베이킹이라는 첫 실험

신입 4인방이 도전한 메뉴는 '썩 인절미 가또 쇼콜라'. 총 3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베이킹 메뉴로, 무엇보다 정확한 계량이 중요했다. 김민성 연구원과 이현규 직원, 김민성 직원과 김치현 연구원이 각각 한 팀이 되어 계량을 맡았다.

네 명 모두 베이킹은 처음이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은 뒤, 갈색 수건에 물을 묻히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서로 팀을 이룬 이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앞치마 끈을 묶어주며 호흡을 맞췄다. 이어 계란 3개를 비롯해 박력분, 강력분, 소금, 생크림, 녹차가루 등 필요한 재료들을 g(그램) 단위에 맞춰 하나씩 준비했다.

이현규 직원과 김민성 연구원은 마치 실험하듯 신중하게 계량을 시작했다. 김민성 연구원은 "친해서 그런지 팀워크가 잘 맞는 것 같다"며 흐뭇해했다. 두 사람은 계량 중 흘린 가루도 즉시 행주로 닦아내며 정리했고, 사용한 계량 그릇은 한 줄로 깔끔하게 정렬해 헛갈리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현규 직원은 레시피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치현 연구원과 김민성 직원은 저울의 영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계량을 다시 해야 했다. 베이킹 경험이 전무한 두 사람에게 모든 과정이 새로웠다. 김치현 연구원은 "유튜브에서만 보던 걸 직접 해보니 설레기도 하고 새롭다"고 소감을 전했다. 두 사람은 "맛만 있으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작업을 이어갔다.



## 서툴지만, 괜찮아 신입이니까

계량을 마친 뒤에는 본격적인 반죽 만들기에 들어갔다. 초콜릿과 버터를 녹이고, 머랭을 만드는 단계다. 중불로 버너를 켜 뒤 중탕을 시작하자, 어디선가 연기가 피어올랐다. 김민성 직원과 김치현 연구원의 자리에서였다. 선생님이 급히 불을 조절해 준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이 상황에서도 김치현 연구원은 "베이킹도 신입이니까요"라며 웃음을 보였다. 초콜릿과 버터는 천천히 저어가며 하나로 섞었고, 여기에 썩가루를 더해 썩 반죽이 완성됐다.

다음은 머랭 치기. 달걀에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현규 직원과 김민성 연구원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다. 김민성 연구원이 달걀을 깨면, 이현규 직원이 깨끗이 씻은 손으로 노른자를 분리하며 호흡을 맞췄다.

김치현 연구원과 김민성 직원은 복잡한 작전보다는 베이킹의 즐거움을 나누는 데 집중했다. 머랭을 치는 동안 네 사람의 얼굴은 점점 새빨갳게 달아올랐다. 가장 먼저 머랭을 완성한 팀은 김민성 연구원과 이현규 직원이었다. 한 사람이 휘퍼를 돌리면, 다른 한 사람이 볼을 단단히 잡아주며 리듬을 맞췄다. 이현규 직원은 김민성 직원과 김치현 연구원의 머랭 치기도 도와줬지만, 붉어진 얼굴에서는 쉽지 않았던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완성된 머랭은 썩 반죽에 조금씩 섞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치현 연구원과 김민성 직원도 점차 감을 잡기 시작했다. 스스로를 '대기만성형'이라 소개하며 선생님의 반응을 살피던 중, 김민성 직원은 반죽의 맛이 궁금해 무심코 손으로 찍어 먹고 말았다. '썩' 하는 소리가 강의실에 울렸고, 선생님은 웃으며 "얼른 손 씻고 오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머쓱해진 김민성 직원은 "맛있어서 그만..."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머랭과 썩 반죽이 고루 섞인 썩 가또 쇼콜라 반죽은 오븐으로 들어갔다. 완성까지는 20분,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다.

**서로를 알아가며 가까워진 팀워크**

굽는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네 사람은 사용한 그릇과 도구를 설거지하며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이현규 직원과 김민성 직원은 한화이글스의 열혈 팬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했고, 2026년의 소망으로 "한화이글스의 가을야구 진출"을 꼽으며 웃음을 나눴다. 설거지를 하던 김민성 기술원과 이현규 직원을 바라보던 김민성 직원은 "금술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고, 마무리 무렵 김민성 연구원은



"네 명에서 많이 친해진 것 같다"며 짧은 하루에 대한 만족감을 전했다. 오븐에서 나온 썩 가또 쇼콜라 시트를 바라보며 이들은 "보람차다", "만족스럽다",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현규 직원만은 살짝 아쉬워했다. 마지막 단계는 데코레이션이었다. 화이트초콜릿과 생크림을 중탕해 화이트 가나슈를 만들고, 미숫가루와 생크림을 섞어 인절미 생크림을 완성했다. 썩 시트 위에 가나슈를 올려 식힌 뒤 인절미 생크림을 얹자, 비로소 케이크의 형태가 완성됐다. 마지막으로 이현규 직원은 "처음 해보는 베이킹이었는데 재미있었고, 잘 만든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성 연구원은 "회사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고, 이런 시간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성 직원 역시 "동기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함께해서 더 보람차다"고 덧붙였다. 완성된 케이크를 부서 동료들과 나누겠다고 한 김치현 연구원은 "아침 커피타임에 막내가 만든 케이크를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다"며 미소를 보였다. 서툴지만 진지했던 신입 4인방의 베이킹 도전은 그렇게 달콤한 추억으로 완성됐다.



# 2026년 진정한 포브 KNF인으로서는



**김민성 중수로연료부 기술원**  
현장에서 반복되는 작업과 문제를 통해 스스로 판단 기준을 세워 책임 있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의 설비 관리 노하우를 배우고, 파견이지만 웃으며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목표입니다.



**이현규 안전환경부 직원**  
입사 1년 차 신입으로, 부서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업무 지원을 통해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선배님들의 말과 태도를 배우고, 회사 주변 맛집 탐방도 즐기고 싶습니다.



**김민성 준법경영부 직원**  
신입 느낌을 벗어나 맡은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배들의 지식과 경험을 흡수하며, 야구·운동 등 취미도 꾸준히 즐기는 건 강한 직장인이 목표입니다.

**김치현 노심감시개발부 연구원**  
연구와 실무에 기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부서 내 관계와 일상 균형을 배우며, 퇴근 후에는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 우리들의 1년 먹거리, 김치를 구독해 드립니다

김치는 우리 삶 속에서 정과 기억을 이어주는 매개체다. 아삭한 한 포기 속에는 가족의 손길과 계절의 맛이 담겨 있고, 함께 나누는 순간마다 따뜻한 마음이 더해진다. 짭조름한 맛과 깊은 감칠맛은 일상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기도 한다. 늘 우리 곁에 있어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하는 김치를 대신 구독해드립니다.





권보라  
홍보부 과장



“생활의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보 담당을 맡았던 경험이 있어 구독 서비스에 늘 관심이 많았습니다. 매호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셨을까?” 싶을 정도로 다채로운 서비스가 진행돼 항상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김치가 다 떨어지고 새로운 브랜드 제품을 구입해 보려던 차에 김치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사보 참여를 통해 체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고 풍족한 마음이 들었는데, 맛까지 훌륭했습니다. 간이 전혀 과하지 않으면서도 배추가 아삭아삭하고 신선했으며, 배추 고유의 단맛이 은은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한 포기 정도만 제공될 줄 알았는데, 무려 세 포기를 보내주셔서 김치를 많이 먹는 저도 꽤 오랜 기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연말연시 업무로 인해 월요일 저녁에도 금요일처럼 지친 날이 많았는데, 이번 선물이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만의 김치 먹는 법

김치를 워낙 좋아해 별도의 요리를 하기보다는 주로 밥 반찬으로 즐깁니다. 김치 본연의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짜거나 달거나 맵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이 살아 있는 김치를 선호합니다. 특히 고기를 먹을 때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었습니다. 이번에 먹어보니 김치가 정말 맛있어서 앞으로 직접 구입해 먹으려 합니다.



박수민  
후행주기기술부 직원



“정을 나누어 주신 분들과 함께 먹는 김치”

평소 주변에서 김치를 나눠주신 분들이 많아, 저희도 받은 만큼 보답하는 마음으로 김치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재주가 부족하고 어머니도 예전만큼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직접 담그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독 서비스를 신청해 받게 된다면, 정을 나누어 주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받은 김치로는 주로 김치전을 많이 해 먹었습니다. 양도 넉넉히 들어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라면과 함께 곁들여 먹은 사진을 첨부합니다! 사보를 통해 김치를 쟁여 들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신입직원이라 처음으로 사보를 구독해봅니다. 이번 구독을 계기로 사내 활동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과 유익한 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만의 김치 먹는 법

아버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저희 가족은 김치를 먹을 때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물에 한 번 헹구내어 짠맛을 줄이거나, 아예 처음부터 싱겁게 담은 김치만을 선택해 식탁에 올립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콤한 김치와 라면이랑 먹습니다.

# 일상 속 작은 휴식을 더하는 안마기, 배달 완료!

바쁜 일상 속에서 쌓인 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휴식의 순간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내일을 향한 새로운 힘을 길러준다. KNF의 '배달의 KNF'는 이러한 작은 휴식과 따뜻한 손길을 선물하며, 임직원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을 함께 전하고자 한다.



## 부모님께서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최정인 ESG협력부 과장

11월 말이었던 어머니의 생신을 바쁜 일상 탓에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 마음 한구석에 늘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선물을 고민하던 중, 부모님이 함께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달의 KNF' 공지를 보고 기쁜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하며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 선물하는 자녀 입장에서도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좋은 기회로 어머니께 늦은 생신 선물로 안마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실용적이고 따뜻한 선물을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일상에 작은 즐거움과 쉽표를 찍어주는 서비스가 계속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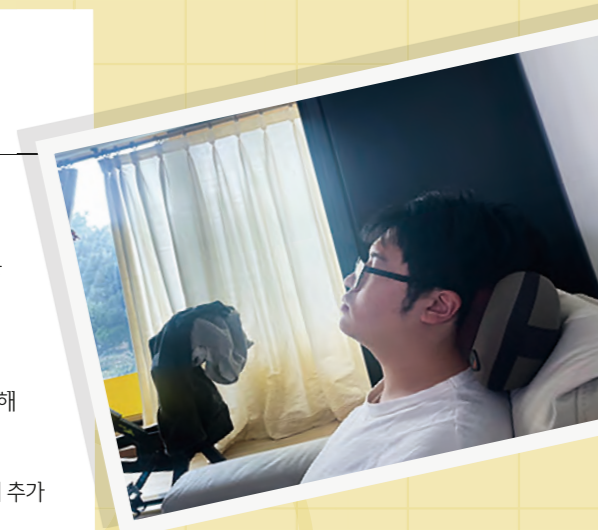
## 가족의 건강, 학업 성과를 함께 챙기는 마음

### 서준수 원자력기술부 직원

동생이 전역 후 학교에 복학해 학업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쌓일 수 있어, 휴식과 근육 이완을 돕기 위해 구독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학업 성과를 함께 챙기고자 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동생은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으로 체력을 관리해왔고, 한의원 치료를 통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안마기를 사용하니 마사지 강도가 적절해 피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고, 집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유선 방식이라 이동 중 사용에는 제약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향후 무선이나 충전식 모델이 추가된다면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클라이너에 고정해서 활용해요!



이런 방법도!



**언제나 제 선택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배우자**

김주현 TSA가공부 기술원

KNF 입사 전 기업분석 차원에서 웹진 사보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꼭 입사해 소중한 사람에게 '배달의 KNF'를 신청해 보고 싶었습니다. 안마기를 배달해 주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제 선택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배우자입니다. 주말부부라는 특성상 직접 마사지를 해드리지 못해 늘 미안했는데, 멀리서나마 안마기를 보내드려 뭉친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소 목과 어깨는 서로 안마를 해주거나 폼롤러로 풀었고, 허리 건강을 위해 '백년허리' 채널의 신전운동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번에 받은 안마기를 허리·목·복부에 사용해보니 마사지 강도와 온열 기능이 만족스러워 리클라이너에 고정해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입 인턴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신 점이 가장 감사하며, 당첨 이후 빠른 배송 덕분에 일주일 이상 충분히 사용해보고 후기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응원해주고, 함께 기뻐해 준 아내에게**

이창훈 보안방호부 청원경찰

2019년 처음 만나 뜨거운 사랑으로 코로나19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6년간의 열애 끝에 2024년 결혼에 골인한 신혼부부입니다^^  
10년간 장교로 군 복무 중인 아내가 퇴근 후 편안하게 피로를 풀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길 바라며 이번 '배달의 KNF'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와 아내는 퇴근 후 집 주변 강변도로를 함께 달리며 하루를 나누고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가벼운 운동이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기회를 주신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입사 전에는 가장 가까이서 응원해주고, 입사 후에는 함께 기뻐해 준 아내에게 뜻깊은 선물을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안마기를 사용하니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풀리고 꿀잠까지 잘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VIDEO

**피렌체**  
 개봉일: 2026. 01. 07.(수)  
 장르: 드라마

마음을 두드리는 여행의 시작. 권고사직과 무기력에 시달리며 삶의 방향을 잃은 석인(김민중)은 젊은 날의 열정이 숨 쉬던 도시, 이탈리아 피렌체로 향한다. 그곳에서 오랜 인연 유정(예지원)과 재회하며, 과거 자신이 버리고 떠난 기억과 감정을 마주한다.

**애거사 크리스티의 세븐 다이얼스**  
 공개: 2026. 01.(넷플릭스)  
 장르: 미스터리, 스릴러

1929년 발표된 애거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신작. 교외 저택에서 열린 호화 파티, 그곳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재기 넘치는 젊은 귀족이 사건 해결에 나선다.

**리틀 아멜리**  
 개봉일: 2026. 01. 14.(수)  
 장르: 판타지, 드라마

아멜이 노퐁브의 소설을 원작으로 일본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소녀 아멜리는 유모 니시오와 함께 사계절을 보내며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행복한 우정을 나눈다. 그런데 아멜리의 세 번째 생일날 예기치 못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언더커버 미쓰홍**  
 첫 방송: 2026. 01. 17.(토)  
 방송: tvN/넷플릭스-티빙 동시 공개  
 장르: 범죄, 드라마

30대 엘리트 증권감독관 홍금보(박신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 증권사에 20살 말단 사원으로 위장 취업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 줄

SHOW

**2026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일정: 2026. 01. 20.(화)  
 장소: 창원3.15아트센터 대극장(전국 투어 예정)

천상의 목소리로 여는 새해. 매년 1월 한국을 찾아 희망찬 새해를 노래하는 빈 소년 합창단이 2026년도 무대를 선사한다. 왈츠와 폴카 등 비엔나의 전통 음악부터 한국 관객을 위한 특별한 가곡, 그리고 팝송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들어볼 기회다.

**원리퍼블릭 내한 공연**  
 일정: 2025. 02. 23.(월) 20시  
 장소: 잠실 실내체육관

2018년 첫 내한 이후 7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2007년 데뷔 앨범 <Dreaming Out Loud>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미국 팝 록 밴드 원리퍼블릭이 2026년 2월 팬들의 뜨거운 환호로 잠실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라이프 오브 파이**  
 기간: 2025. 11. 29.(토)~2026. 03. 02.(일)  
 시간: 화~목 19:30/금 14:30, 19:30  
 장소: GS아트센터

멕시코 한 병실의 침대 하나가 인도의 동물원으로, 광활한 망망대해로 변신한다. 영화의 감동을 무대에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 살아 움직이는 무대는 끝없이 관객에게 묻는다. 파이가 버터넨 시간, 그 진실은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EXHIBITION

**어제의 조각 내일의 회화**  
 일정: 2025. 11. 04.(화)~2026. 02. 22.(일)  
 장소: 음성서울한독의약박물관  
 관람료: 무료  
 문의: 043-530-1004

한독의약박물관이 청주시립미술관과 함께 두 번째 협력 전시를 개최한다. 음성생명갤러리에서는 이은우 작가의 <Fractal>과 <Flux> 시리즈를 포함한 총 23점의 작품이 공개된다. 서울 전시장에서는 유수진 작가의 신작 2점과 함께, 3m 높이의 타워형 구조물로 완성한 대형 설치작품 <2016.03~2025.09.>이 선보인다.

**칸딘스키, 추상 회화의 오디세이**  
 기간: 2025. 03. 14.(금)~2026. 02. 22.(일)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빛의 벵커  
 관람료: 성인 19,000원

화가이자 시인, 미술 이론가인 칸딘스키의 세계를 담은 대규모 전시를 선보인다. 전시장 입구부터 유럽과 지중해 등 그가 여행했던 풍경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며 관객을 맞이한다. 내면의 우주를 탐험하는 칸딘스키의 추상 회화가 빛과 소리 속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펼쳐진다.

**말(馬)들이 많네—우리 일상 속 말**  
 기간: 2025. 12. 16.(화)~2026. 03. 02.(월)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2  
 관람료: 무료

국립민속박물관이 2026년 병오년을 맞아 '말'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사람과 말이 함께 한 문화와 그 속에 담긴 꿈과 기운을 따뜻한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자리다.

문화캘린더  
CULTURE  
CALENDAR

FESTIVAL

**온천천 빛 축제**  
 기간: 2025. 12. 19.(금)~2026. 02. 01.(일)  
 장소: 부산 동래구 온천천

부산 동래구 온천천이 겨울의 낭만을 품은 빛의 강으로 변신한다. '온천천 연가(戀歌)'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약 1.1km 구간을 따라 다채로운 빛의 조형물이 수놓아져 있어 특별한 야경을 선사한다.

**대관령 눈꽃축제**  
 기간: 2026. 02. 13.(금)~2026. 2. 22.(일)  
 장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로 1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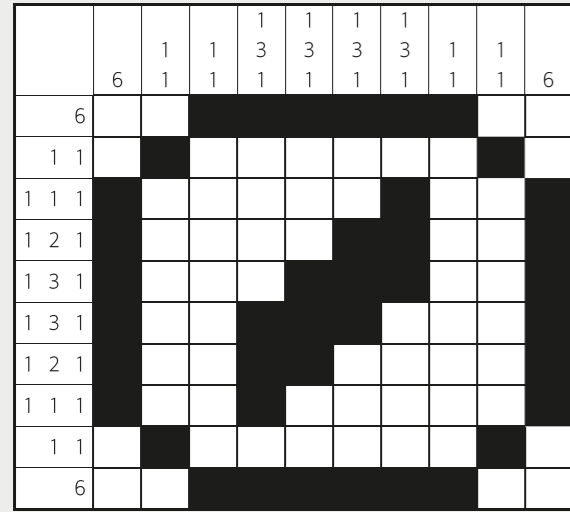
대관령눈꽃축제는 지역경제와 주민 화합을 이끌기 위해 1993년 시작된 대한민국 최초의 겨울 축제다. 올해는 마스코트 '눈동이의 국가대표 성장기를 테마로 초대형 눈-얼음조각과 동계 스포츠 체험존을 선보인다.

# 숫자로 그리는 그림

## 노 노 그 램

<KNF매거진 11+12월호>  
노노그램이 그려낸 것은?

정답



배움의 습관(나침반)을 표현한 기호입니다.

노노그램은 각 칸의 가로축과 세로축 칸에 적힌 각각의 숫자를 지도 삼아 칸을 색칠해 나가는 놀이입니다. 쓰인 숫자만큼의 연속된 칸을 칠해야 하고, 숫자와 숫자 사이는 최소 한 칸을 비워야 합니다. 숫자의 순서와 칠해진 칸의 순서는 일치합니다.

참고 동영상



노노그램 정답자(총 24명)

김*우 6996	오*희 6345	김*경 8033
김*지 6520	최*석 9852	최*환 9601
박*형 3309	박*규 6345	고 * 4030
문*국 2079	장*규 1712	김*수 6627
이*현 9995	김*경 8033	강*우 7694
최*인 8264	강*민 0999	박*희 1000
강*원 2039	최*준 1513	정*욱 1139
정*영 2467	강*경 8033	정*숙 5630

### 독 자 의 한 줄 평



칼럼 내용에서 “배움은 시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데서 시작합니다”라는 문장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능세대였던 저는 늘

객관식 문제 속 주어진 보기에서만 답을 고르며 사고의 폭을 제한했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접하고 나니, 배움이란 스스로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윤 911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병주 원장의 인터뷰는 여성과학자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과학인을 양성하고 여성과학계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보려는 좋은 동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더 많은 여성 인재들이 과학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합니다.

-강\*규 7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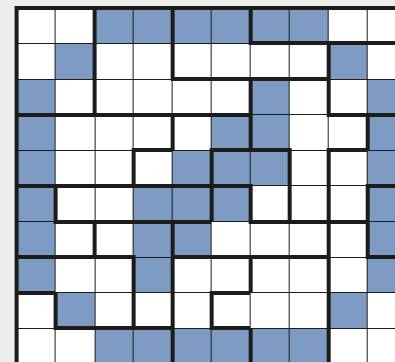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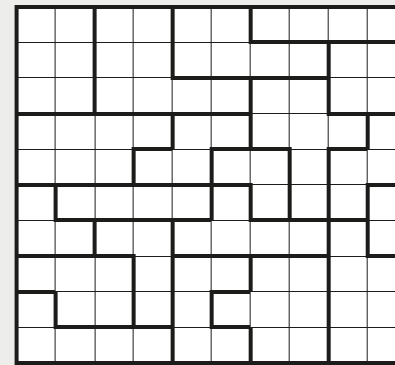
# 2026년 원자력연료에서 새로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칸마다 색칠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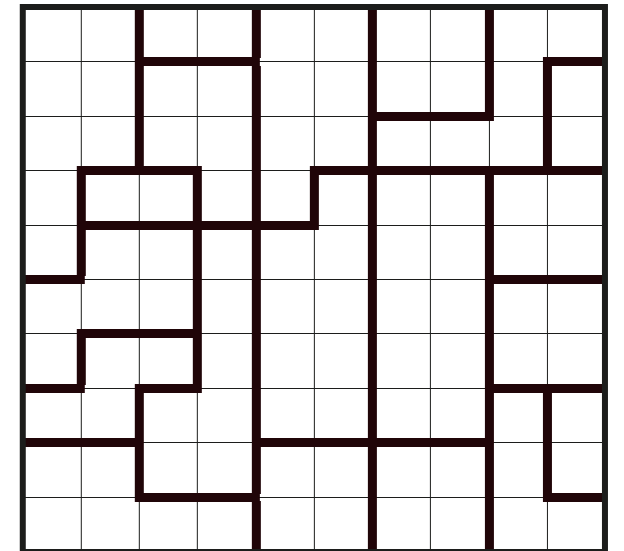
## 노 리 노 리 응용편

- ① 규칙에 따라 칸에 색을 채워서 숨겨진 그림이나 패턴을 완성한다.
- ② 각 구역에는 2개의 칸을 색칠해야 한다.
- ③ 색칠한 2개의 칸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 인접한 경우 → 양옆 또는 위아래 직선(■, ■)
  - 떨어진 경우 → 같은 구역 내에서 두 칸(■)

예시



문제



**HINT** 1+2월호 표지 살펴보기

정답을 맞췄다면 사진을 찍어 아래 큐알 코드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기한 2026년 2월 13일(금)  
당첨자 선물 1만 원 커피 상품권  
당첨자 발표 2026년 원자력연료 3+4월호



정답 인증샷

